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위치 빼고 다 바꿨다”... DAMG 델리로 맛보러 오세요!

3면

올타임 최강자전으로 돌아오는 <강철부대3>...한미 특수부대 총출동

4면

드림캔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 오픈

“농업의 미래를 만나다”... 10회 맞은 A FARM SHOW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280여 개 부스 참여로 역대 최대 규모...사흘 간 4만 명 방문



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고향사랑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 ② 에이팜쇼 방문객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모종을 담고 있다. ③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네 번째)와 에이팜쇼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④ 시식 중인 방문객들 ⑤ 시연 중인 농업용 급수 시스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데, 에이팜쇼에선 여러 지자체의 지원책을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역 창농을 준비하는 20대 농업인)

“요즘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오른 데다 중국산이 많아 믿고 살 만한 곳이 별로 없는데, 에이팜쇼에선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50대 주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고향사랑 박람회’가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사흘간 열린 이번 에이팜쇼는 ‘스마트 팜, 스마트 잡(Smart Farm, Smart Job)’을 주제로 진행됐다. 농업에서 미래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농식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저렴하게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까지 모두를 만족시켜 에이팜쇼가 대한민국의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를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이 28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첨단 농업 기술을 한눈에

2013년 처음 시작한 에이팜쇼는 10년 동안 첨단 농업 기술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올해도 다양한 농업 기술들이 선을 보였다. 스마트 팜 설비를 개발해 보급하는 농업 법인 ‘그린’은 1전 시장 내에 발광다이오드(LED)로 바질 등 채소를 수직 재배(식물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키우는 방식)할 수 있는 시설을 전시했다. 1일 행사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

기표 그린 대표에게 “수직 재배 시설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묻는 등 그린의 개발한 재배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했다. 권 대표는 “비닐하우스 없이도 많은 작물을 심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 등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창농을 꿈꾸는 20, 30대 청년들이 특히 신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스마트농업관’을 찾은 청년농 지망생 박성원 씨(29)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팜 설비 관련 정보를 찾아보곤 하는데, 에이팜쇼에선 개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산업기계 및 부품 전문 기업인 LS엠트론은 에이팜쇼에서 처음으로 콤팩트 트랙터 ‘MT2’를 공개하기도 했다. LS엠트론 관계자는 “MT2는 자본과 토지가 적은 청년농을 위한 맞춤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고향사랑 답례품 한 곳에...박람회 최초

이번 에이팜쇼에는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고향사랑 특별관’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초과분은 16.5%)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대 한도

는 500만 원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특산품 매출이 늘고 홍보 효과도 발생한다.

고향사랑 특별관엔 이강주, 천일영 등 전국 243개 지자체의 답례품이 한 곳에 전시됐다.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 답례품이 한 자리에 전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람객들은 답례품을 구경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답례품 구경부터 실제 기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해준 시스템 덕분이었다. 1일 특별관을 찾은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고향인 전남 순천시 등 3곳에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 에이팜쇼 개회식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김진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이 참석해 에이팜쇼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 기업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간편식 및 커피



① 미디어센터 사원식당 내부 ② 9월 4일 사원식당 운영 재개 첫날 사원들로 가득 찬 식당 모습 ③ 간편식 진열대 모습



#충정로 맛집



충정로사원

① 충정로 사원식당 내부 ② 사원들이 새로 마련된 셀프라면 코너를 이용하고 있다.

“위치 빼고 다 바꿨다”…DAMG 델리로 맛보러 오세요!

DAMG 사원식당 전면 리뉴얼 마치고 운영 재개…간편식-셀프라면 코너 신설

새 단장을 마친 충정로사옥과 미디어센터의 사원식당이 8월 28일과 9월 4일 각각 운영을 재개했다. 이번 사원식당 개선사업은 위탁 업체 교체와 함께 식사의 질 향상과 메뉴 다양화, 식당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위치만 빼고 모두 바뀐 새 사원식당 ‘담지 델리(DAMG Deli)’를 소개한다.

확 바뀐 사원식당, 맛도 분위기도 UP!

가장 큰 변화는 사원식당 내부 인테리어다. 단순히 식사를 위한 ‘구내식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산뜻한 카페テリア 느낌을 강

조하기 위해 밝은 바닥 소재와 화이트톤 벽면, 식물 인테리어로 내부를 꾸몄다. 또 1인석과 단체석을 신설하고 좌석 수를 조정해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미디어센터 사원식당은 지하에 있어 다소 어두웠던 점을 고려해 펜던트, 라인 조명 설치로 분위기를 바꿨다. 오래된 각종 식기류와 의자, 테이블도 모두 교체했다.

이번 개선사업의 핵심은 메뉴의 다양화와 맛 업그레이드이다. 메인 코너인 한식(KOREAN)과 양식(INTERNATIONAL)에는 트렌디한 메뉴를 추가했고 간편식(PickyPicker's)과 셀

프라면 코너(마이보글)를 신설했다. 한식은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떡볶이 요리를 강화하고 양식은 글로벌 요리와 지역 맛집 메뉴를 제공하는 등 식사 퀄리티를 높였다. 간편식은 5가지의 메인 메뉴(초밥·김밥 등 밥류, 샌드위치, 샐러드, 베이커리, 선식 등), 사이드 메뉴(견과류, 과일, 요거트), 음료를 각각 1가지씩을 고를 수 있다. 셀프라면 코너에서는 직접 조리기계를 이용해 떡, 계란, 파 등 토핑을 취향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두 코너는 배식 시간과 상관없이 사원식당 운영시간 동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사원식당 운영은 경쟁입찰을 통해 검증된 업력과 간편식에 강점을 가진 삼성웰스토리가 맡게 됐다.

새 사원식당 이름은 ‘담지 델리(DAMG Deli)’

운영 재개 첫날부터 사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첫날 중식 특별식으로 ‘보쌈정식’과 ‘자메이카닭다리플래터’가 제공됐다. 많은 사원이 몰리면서 준비한 식자재를 대부분 소진했다. 충정로사옥 사원식당 점장인 삼성웰스토리 김나혜 프로는 “사원 여러분이 첫날부터 정말 큰 호응을 보여주셔서 놀랐다”며 “DAMG 사원식당 운영에 큰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맛과 영양 모두 사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했다.

약 7주 간의 개선 작업은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과 PF관리팀, 협력지원팀 간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인테리어와 디자인 설계는 자산관리팀이, 전가·시설·소방공사 관리 감독은 PF관리팀이 협업한 결과 차질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단장을 마친 사원식당의 새 이름은 ‘담지 델리’다. 동아미디어그룹을 뜻하는 DAMG와 ‘특별히 준비된 음식’을 의미하는 델리를 합친 것이다. 담지 델리는 앞으로 계절별 맞춤 메뉴, 전문 세트 초대 등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영지원국 협력지원팀 이용규

평일 오전을 채워줄 채널A 유튜브 라이브 <정치 시그널>… 매일 아침 ‘이슈메이커’를 만나다

매주 월~목요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진행



9월 4일 <정치 시그널> 첫 게스트로 오세훈 서울시장 출연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정치 시그널이 먼저 잡아드립니다”

보도본부 9월 4일 다양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선보이며 구독자들의 오전을 책임진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건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 16년 차 기자인 보도본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 매주 월~목요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10여년 간 청와대와 대통령실, 국회 등 현장을 발로 뚫은 경험을 살려 하루를 주

도할 이슈를 던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목에 ‘라디오쇼’가 붙은 건 ‘보이는 라디오’ 콘셉트의 유튜브 방송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통상 정치부 기자들은 각 방송사들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치인들의 말을 인용해 기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정치 시그널>이 타 언론사 기사에 인용될 수 있는 시각과 이슈를 던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치 시그널>은 매일 아침 정치권의 ‘이슈메이커’를 불러내 기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정 코너를 담당할 패널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정치인부터 젊은 시각으로 정치 이슈를 파헤칠 MZ세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한 주 간 이슈를 정리할 월요일의 코너 ‘정치 예보관’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맡고, 화요일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근무했던 이승환, 여선웅 전 행정관이 참여하는 ‘용심 청심’을 선보인다. 수요일 ‘게임체인저’ 코너에서는 이슈의 흐름을 바꿀 여야 정치인들을 초대하고, 목요일은 김성태 정봉주 두 전직 의원과 함께 핵심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노른자 정치’ 코너로 꾸민다.

4일 첫 방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연했고, 이날 오 시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동시접속자 수에서 경쟁 프로그램들을 제치며 쾌조의 스타트를 했다. <정치 시그널>은 핵심을 콕 짚는 콘텐츠로 구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구독, 댓글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필수! #중댓구알

보도본부 정치부 노은지

<돌직구쇼> 끝나면 <김진의 더라방>… 재킷 벗어던지고 솔직 담백 소통

2만 4000명 동시 접속…구독자 반응 폭발적



이재명의 단식…그 결론은?

9월 4일 첫 방송에서 김진 앵커(가운데)와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왼쪽),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재킷을 벗고 <김진의 더라방>을 진행하고 있다.

<돌직구 쇼>를 진행하는 김진 앵커도 매주 월~금요일 방송을 마친 직후인 오전 10시 20분부터 유튜브 <김진의 더라방>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한다. <돌직구 쇼>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패널들이 ‘오늘의 토크’로 출연해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듯 꾸밈없는 입담을 뽐낸다.

9월 4일 첫 라방에서 김 앵커와 패널들은 재킷을 벗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속마음 카메라’ 코너에서는 방송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다. 김 앵커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내추럴한 토크가 <더라방>만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더라방>에서는 그날 가장 뜨거운 이슈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룬다. 앵커가 댓글을 읽으며 구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라방 시작 한 주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4000명을 돌파했고, <돌직구 쇼> 유튜브 구독자 수는 44만 명에서 46만 7000명(13일 기준)으로 늘었다. <돌직구 쇼>가 끝난 뒤에도 <더라방>에서 거침없는 돌직구가 이어진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올타임 최강자전으로 돌아오는 <강철부대3>...한미 특수부대 총출동

9월 19일 첫 방송...실제 군 시설에서 미션

채널A의 간판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강철부대>가 9월 19일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021년 겨울,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철부대>는 이번 시즌 역대급으로 강한 부대와 캐릭터들로 무장해 '올타임 최강자전'으로 치러진다.

<강철부대> 새 시즌을 준비하며 제작진은 극심한 고뇌의 벽에 부딪혔다. 부대의 명예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는 특수부대 출신 군인 캐릭터로 신드롬을 일으킨 시즌1과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와 공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해 항공기와 거대 선박을 활용한 미션으로 스케일을 확 키운 시즌2까지, 지난 시즌들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진은 "이전까지 보지 못한 강한 캐릭터들의 최강자전을 보여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선 강한 부대와 센 캐릭터들을 모아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시즌 참여했던 군사경찰특임대(SDT)와 해병대수색대는 아쉽지만 제외했다. 세 번째 시즌을 실현적이고 전문적인 미션들로 구성하기 위해 구조부대인 해난구조전대(SSU)도 이번에는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의 빈자리는 베일에 싸인 해군침보부대(UDU)가 메운다. 육군침보부대(HD)와 같은 정보사령부 소속 이자 라이벌로,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천후 육해공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최정예 미국 특수부대가 새로



대원들이 1:1 참호격투를 벌이는 모습.

합류한다. 이들을 섭외하는 과정은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 시청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인물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진은 미 해군과 육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그린베레 등 전역자들을 살살이 뒤져 접촉하고 SNS를 찾아 직접 연락했다. 또 주한미국 특수전사령부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많은 미 특수부대 단체와 접촉했다.

술한 거절 끝에 4명의 미 특수부대 대원을 모았다. 이들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펼치는 숨 막히는 대결은 이번 시즌 관련 포인트 중 하나이다. 막강한 피지컬과 경력을 자랑하는 특수부대

출신들과 이전 시즌 맹활약한 대원들도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실제 군사 시설에서 펼쳐지는 극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각 부대들이 펼치는 전술과 승부를 향한 집념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 끌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이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이다. 단 하나의 강철부대 자리를 두고 펼치는 대원들의 여정은 9월 19일 <강철부대3>에서 시작된다.

제작본부 1CP 신재호



<강철부대3>에 처음 합류한 미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그린베레 출신 대원들.



<강철부대3>의 포스터.

채널A 가을 개편...신규 파일럿과 시사교양으로 색을 더하다

오후 8시 시간대 라인업 강화...대표 프로 배치

4인용 식탁



<4인용 식탁> 첫 게스트로 방송인 최유라와 개그우먼 이영자가 출연했다.

강력한 4팀



<강력한 4팀> 진행을 맡은 보도본부 구자준 기자

아이셰프



최현식 셰프와 아이셰프가 한 팀이 돼 요리를 하는 모습.

선님은 패밀리



<선님은 패밀리> MC를 맡은 안정환·이혜원 부부

채널A가 가을 개편을 맞아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번 가을 개편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론칭과 함께 주요 예능을 오후 8시대에 전진 배치해 프로그램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먼저 <절친 토크멘터리 4인용 식탁>, <강력한 4팀>, <도전! 애슐링 아이셰프>, <선님은 패밀리> 까지 4개의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포문은 <4인용 식탁>과 <강력한 4팀>이 열렸다. 9월 4일 첫 방송 된 <4인용 식탁>은 토크쇼와 다큐멘터리를 합친 '토크멘터

리' 장르다. 스타의 '베프'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증언을 통해 스타의 인생을 담아낸다. 첫 방송에서는 방송인 최유라가 미술관 같은 한남동 집을 공개했다. 절친 개그우먼 이영자 등이 출연해 '찐친'만 알 수 있는 최유라의 비밀을 공개하는 등 꾸밈없는 일상을 공유했다. <4인용 식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된다.

같은 날 첫 방송 된 <강력한 4팀>은 그날의 강력 사건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사회부에서 경찰과 검찰을

취재한 보도본부 구자준 기자가 진행을 맡아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 50분 시청자를 찾는다. 구 기자는 "<강력한 4팀>은 한마디로 올라운더(allrounder)"라며 "정치 사회 뉴스부터 때로는 황당하고 기막힌 사연까지, 어떤 이슈든 <강력한 4팀>만의 차별화된 시각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8일 오후 9시 30분에는 요리 경력 '1개월'의 아이 셰프와 대한민국 대표 셰프테이너들이 짝을 이뤄 요리 대결을 펼치는 <아

이셰프>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평균 5.5세의 아이 셰프와 스타 셰프가 팀이 돼 '애슐링' 배지를 건 좌중우돌 요리 대결을 선보인다. 삼남매의 아빠인 방송인 김성주가 MC를 맡고, 낭만 요리사 최현식, 22년 차 중식 셰프 정지선, 먹기 위해 요리하는 이원일 셰프와 호주에서 온 미슐랭 셰프 조셀리저우드가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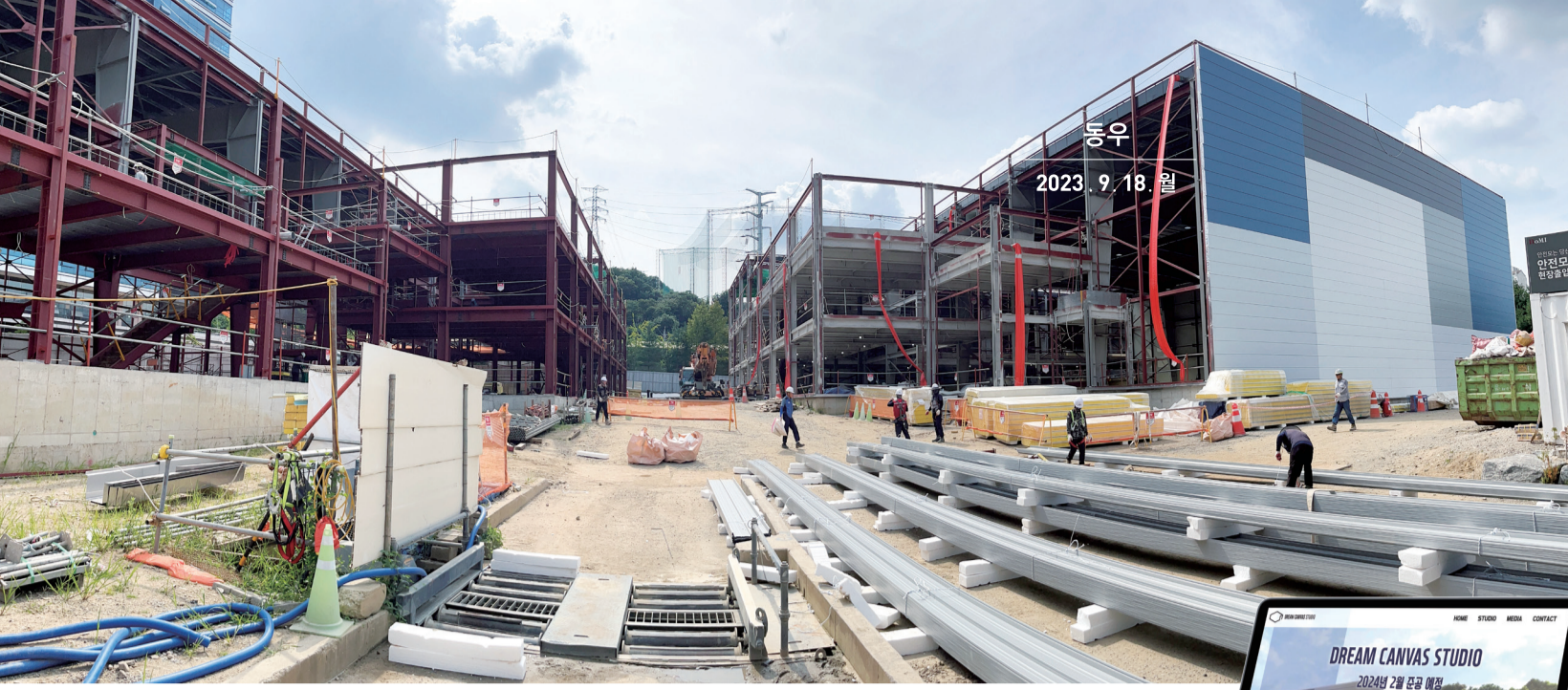
22일 오후 9시 30분에는 <선님은 패밀리>가 첫 방송된다. 해외에서 'K-컬처'를 전파하는 국제 가족의 일상을 지켜보는 관찰

예능으로, 국제 가족들이 타지에서 겪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제작진은 "결혼 초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선을 넘으며 해외 살이를 몸소 경험한 결혼 23년 차 안정환, 이혜원 부부와 전 세계의 선을 넘어 여행을 다니는 유세윤의 조합에 주목해달라"면서 "그들의 생생한 해외 경험담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채널A 간판 프로그램도 새 시즌을 선보이며 프로그램 라인업에 힘을 보탤다. 새 시즌을 시작하는 <강철부대3>와 <도시어부5>에 더해 최근 종영한 <하트시그널4>의 바통을 <애프터 시그널>이 이어받아 최종 선택 후 커플들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다.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도 오후 8시대로 속속 전진 배치됐다. 월요일 신규 교양 <4인용 식탁>에 이어 <금쪽 상담소>가 화요일로 시간을 옮겼다. 목요일에는 <나는 몸신이다 시즌2>,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금쪽같은 내 새끼>와 <서민갑부-폐업탈출대작전>이 시청자들의 저녁을 책임진다. TV 시청량이 크게 늘어나는 오후 8시대 라인업을 강화해 메인 뉴스인 <뉴스A>가 끝난 뒤에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김은정



▲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드림캔버스 스튜디오 공사현장

▶ 드림캔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 화면

드림캔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 오픈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드라마 세트장 세부 정보 및 홍보영상 등 공개

2024년 2월 완공 예정인 동아미디어 그룹(DAMG)의 드라마 세트장 '드림캔버스 스튜디오'의 홈페이지(dreamcanvasstudio.com)가 공개됐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스튜디오를 상징하는 CI를 시작으로 홍보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를 통

해 스튜디오 정보와 홍보영상, 위치 안내 등 상세한 정보가 볼 수 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들어설 드림캔버스 스튜디오는 캔버스 블루와 그린, 핑크, 오렌지 총 4개 동으로 구성된다. 각 세트장 규격은 가로 31m, 세로 43m, 높이 10.4m이며 면적은 약 600평이다.

스튜디오는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외관 골격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 완공 후에는 DAMG 계열사뿐 아니라 외부 제작사들도 장소 대여가 가능하다.

동아일보, 채널A, 스토리네트워크로 구성된 드림캔버스 스튜디오 건설 태스

크포스(TF)팀은 스튜디오 세부 정보를 외부 제작사들에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또 채널A B&C, 동아미디어엔 등 DAMG 계열사들도 홈페이지 구축에 힘을 보탤다.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 이진걸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세진 / 동아일보 편집국

- 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여 제가 가진 장점들을 더 발전시켜 다양한 상황에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이는 유능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 ② 평소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 미술관과 전시회를 다니며 작품 관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 주목받는 아트 컬렉팅에도 관심이 있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 ③ 스카이에일리



황지경 / 동아일보 편집국

- ① 동아일보가 100여 년 간 발전해온 것처럼 저 역시 꾸준히 공부하고 발전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요즘 관심사는 현재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후회를, 미래에 초점을 두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 오롯이 집중함으로써 제 인생을 그려겠습니다.



김대현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 ① 입사 후 사생활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가 예상되는 부분의 개량-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② 제 요즘 관심사는 자격증 취득으로 현재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근 후 틈틈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③ 국방부 근무지원단



장민규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 ① 입사 후 선배님들과 업무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업무에 신속히 적응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를 파악해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불량을 제로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② 친구들과 캠핑을 다니면서 관심을 갖게돼 캠핑용품, 캠핑 명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에도 관심이 생겨 식단이나 운동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③ 자연서비스팀



최준현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 ①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을 토대로 입사 후 제가 맡은 업무에 빠르게 흡수하여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따겠습니다.
- ② 입사 후 달라질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하여 좋은 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보디빌딩과 체계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운동도 경험하고 싶어 다른 운동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 ③ 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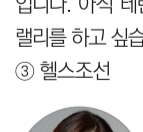
장선빈 / 동아일보 재경국

- ① 매사 긍정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창의적 사고와 지속적 업무 연찬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100년, 새로운 동아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 ②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강화를 위해서 발레를 꾸준히 배우고 있으며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관람을 좋아합니다. 최근 경제사에 관심이 생겨 관련 도서를 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 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 ① 미디어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저 역시 빠르게 배우고 다양한 시각으로 주변을 살펴 동아일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현재 관심사는 새로 시작한 테니스입니다. 아직 테니스지만 열심히 연습해 하루빨리 코र्ट에서 랠리를 하고 싶습니다.
- ③ 헬스조선



김태림 / 채널A 보도본부

- ① 안녕하세요. 김태림입니다. 새롭게 배울 부분은 빨리 배우고 적응해서 채널A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②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양제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헬스,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 ③ MBN

편집국 기자 직군 대상 그래픽-디지털 전략 교육 진행

9월 11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2시간 진행... 기자직 전원 1회씩 참여



편집국 기자들이 9월 11일 동아미디어센터 14층 회의실에서 그래픽 교육을 받고 있다.

편집국은 9월 11일부터 취재부서 기자직(데스크 포함)을 상대로 그래픽 및 디지털 전략 교육을 시작했다.

10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서는 지면과 모바일 모두 한 눈에 잘 보이는 그래픽을 제작하는 원칙과 사례, 동아미

디어그룹의 디지털 전략과 실행 방법에 대해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그래픽 교육은 김수진 편집국 뉴스디자인팀 기자(부장급)가, 디지털 교육은 이샘물 경영전략실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이 담당한다.

11일 첫 교육에는 사진부를 포함한 10개 취재부서 데스크와 기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장은 "모바일 친화적인 신문 그래픽 속에 글자로 설명하기보다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원고에서부터 핵심만 간단하게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팀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매체와 기자들의 영향력과 브랜드를 키운다"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충성 독자층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주간 편성표, UX·UI 및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편집국은 앞서 올해 5월과 7월 각각 취재부서 부차장을 상대로 그래픽 전략 교육을, 2022년 이후 입사한 경력기자 16명을 상대로 디지털 전략 교육을 시범 실시 한 바 있다.

편집국 부국장 신석호

편집국 유원모 기자, 아시아 저널리즘 펠로십 참가

아시아 12개국 15명 기자 4주 간 연수



한국에 대해 발표 중인 편집국 문화부 유원모 기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봤어?" 8월 5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저널리즘 펠로십'(AJF)에 참가하는 동안 해외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역시 'K-콘텐츠'와 관련된 것이었다.

다. K-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서로 다른 국적의 기자들이 모인 연수 내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AJF는 아시아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5년 차를 맞았다.

아시아 기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교류가 주된 목적이다. 올해는 인도, 베트남, 라오스,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12개 국가에서 기자 15명이 참가했다. 한국 기자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수 일정은 양극화와 가짜뉴스 문제 등 아시아 전역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구글 아시아태평양본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국가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에서 한국 기자에게 배정된 주제는 '부패'였다. 발표를 통해 '조국 사태'와 '대장동 사건' 등에서 동아일보의 활약상을 소개할 수 있었다.

편집국 문화부 유원모

DAMG 수상소식

채널A 손인해·동아일보 장하얀 기자,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



왼쪽부터 편집국 장하얀 기자, 보도본부 손인해 기자

보도본부 사회부 손인해 기자와 편집국 사회부 장하얀 기자가 9월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협이 수여하는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생명 존중 우수보도상



편집국 김소영 기자

편집국 정책사회부 김소영 기자가 8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3년 3분기 생명 존중 우수보도상'을 수상했다. 김 기자는 자살 예방에 힘쓰는 이들을 인터뷰한 디지털 콘텐츠 '죽고 싶은 당신에게' 시리즈를 통해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